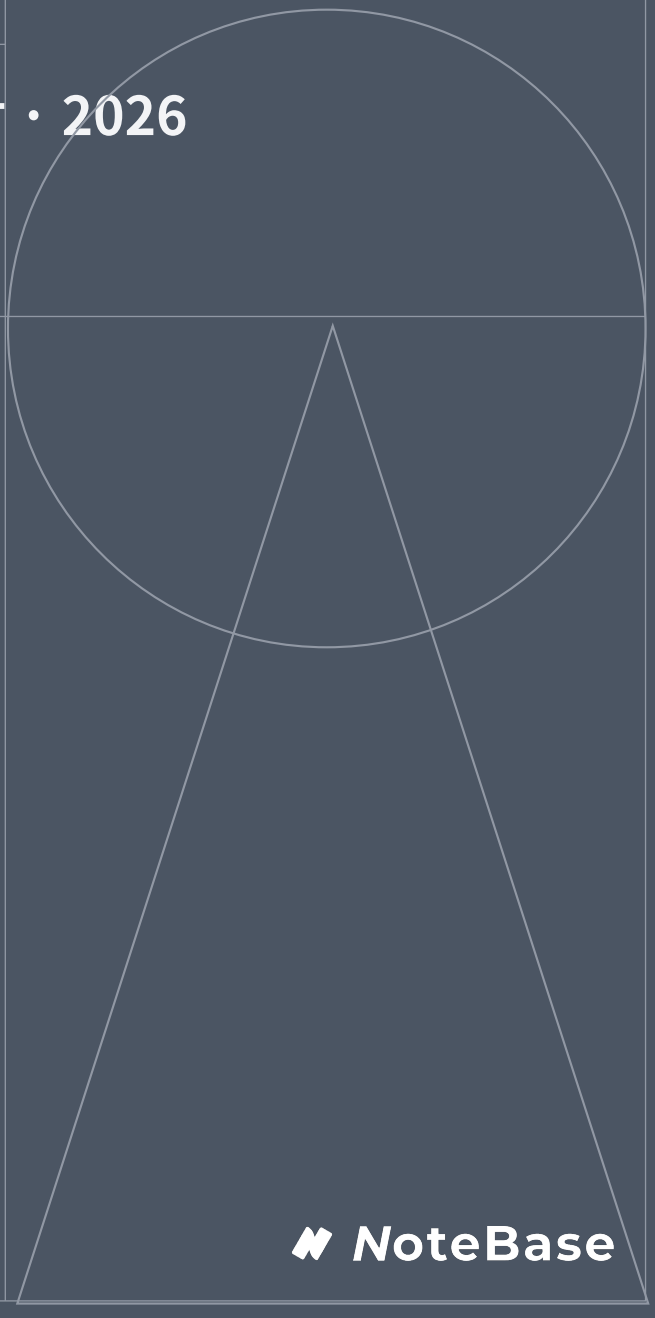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6

문 1.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A. 비교가능성 B. 검증가능성 C. 적시성

① (가): A, (나): B, (다): C
② (가): B, (나): C, (다): A
③ (가): C, (나): A, (다): B
④ (가): C, (나): B, (다): A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서로 독립적인 관찰자가 정보의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이다. 이는 항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비교가능성과 구별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C. 적시성: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이 유용해도 필요한 시점을 지나 제공되면 해당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단서이다.

(나) B.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서로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의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관찰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목끼리 닮거나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다) A. 비교가능성: 이용자가 둘 이상의 항목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예를 들어 같은 기업의 서로 다른 기간 정보나 서로 다른 기업의 정보를 비교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설명에 대응한다.

이 대응을 연결하면 (가)는 C, (나)는 B, (다)는 A이며,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200,000이고,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는 ₩150,000이다. 기말 미지급급여가 ₩120,000일 경우, 기초 미지급급여는?

① ₩130,000

② ₩150,000

③ ₩170,000

④ ₩19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현금 지급은 미지급급여를 줄이고, 당기에 발생한 급여비용은 미지급급여를 늘린다. 지급액이 비용보다 50,000원 많아 **미지급급여가 50,000원 감소**했으므로, 기초 잔액은 기말 120,000원보다 큰 170,000원이다.

계산 과정

미지급급여는 이미 급여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의 발생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현금 지급은 부채를 감소**시키므로, 기초 잔액에 당기 급여비용을 더하고 당기 지급액을 빼면 기말 잔액이 된다.

당기 현금 지급액은 200,000원이고 급여비용은 150,000원이다. 지급액이 비용보다 200,000 − 150,000 = 50,000원 많으므로, 이는 **미지급급여 잔액이 순감소한 금액**이다.

기말 미지급급여 120,000원은 기초보다 50,000원 줄어든 잔액이다. 따라서 기초 미지급급여는 120,000 + 50,000 = 17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기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30,000, ₩10,000이며, 기말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 ₩20,000이다. (주)한국은 기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였다. 당기순이익이 ₩12,000일 때, (주)한국이 기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은?

① ₩2,000

② ₩8,000

③ ₩10,000

④ ₩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는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자본의 증가액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현금배당액이다. 자본은 10,000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2,000원이므로, 현금배당액은 2,000원이다.

계산 과정

기초·기말 자본 계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기초 자본은 30,000 − 10,000 = 20,000원이고, 기말 자본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기중 자본의 실제 증가액은 30,000 − 20,000 = 10,000원이다.

무상증자의 영향: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래이다. 자본금은 늘고 잉여금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므로 **자본 내부의 구성만 바뀌고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총계의 변동을 계산할 때 무상증자액을 더하지 않는다.

현금배당의 영향: 당기순이익은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줄여 자본을 감소시킨다. 배당을 선언할 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미지급배당금이 발생하며, 지급할 때는 현금과 미지급배당금이 함께 감소한다. 따라서 **선언과 지급을 각각 자본 감소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현금배당액을 뺀 금액이 된다.

현금배당액 계산: 배당이 없었다면 기말 자본은 20,000 + 12,000 = 32,000원이었을 것이다. 실제 기말 자본은 30,000원이므로 그 차이인 32,000 − 30,000 = 2,000원이 현금배당액이다. 이는 ①의 2,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④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순공정가치'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고쳐야 한다.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뺀 금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에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제품뿐 아니라,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될 **원재료도 포함**된다. 원재료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생산을 거쳐 판매수익을 얻는 데 사용되므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② X: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예상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해당 기업이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금액이므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재고자산을 높게 표시하지 않도록 취득원가와 비교한다. 선지의 '순공정가치'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고쳐야 한다.

③ O: 위탁약정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상품을 맡아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이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어도 **상품의 통제는 위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의 귀속은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라 누가 그 상품을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O: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매입원가·전환원가 및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판매원가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이러한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의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① 무상감자 결의 및 실시
② 주식배당 결의 및 교부
③ 자기주식의 소각
④ 주식의 액면발행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거래이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증가한다.

핵심 풀이

주식배당: 현금 대신 신주로 배당하는 것이다.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신주를 교부하면 배당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므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새로 발행한 주식만큼 발행주식수도 증가하여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자본 항목 사이의 이동이므로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주식의 액면발행과 구분: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받은 금액만큼 자산과 자본금이 증가하고 발행주식수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익을 배당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감자·소각과 구분: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래이므로 자본금 증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없애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여 발행주식수 증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다음의 원가자료를 이용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직접재료원가(기초) ₩200 ◯ 직접재료원가(기말) ₩100
◯ 직접재료 매입액 ₩400 ◯ 직접노무원가 ₩500
◯ 감가상각비－본사건물 ₩100 ◯ 감가상각비－공장설비 ₩50
◯ 재공품재고(기초) ₩1,5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300
◯ 재공품재고(기말) ₩1,000

① ₩1,850

② ₩1,900

③ ₩1,950

④ ₩2,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이므로,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뺀다. 본사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당기총제조원가는 1,350원이며, 재공품을 조정하면 1,8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제조를 완료하여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한 원가이다. 먼저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합쳐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공품의 기초·기말 금액을 조정한다. 모든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1. 직접재료원가: 기초 직접재료 200원에 당기 매입액 400원을 더하면 사용 가능한 재료는 600원이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말 직접재료** 100원을 빼면, 당기에 제조에 사용한 직접재료원가는 200 + 400 − 100 = 500원이다.

2. 제조간접원가: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50원과 기타 제조간접원가 300원을 합하면 350원이다. **본사건물 감가상각비 100원은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의 관리활동에 관한 비용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3.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제조에 투입한 원가이므로 직접재료원가 500원, 직접노무원가 500원, 제조간접원가 350원을 합한다. 당기총제조원가는 500 + 500 + 350 = 1,350원이다.

4.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 1,500원은 전기까지 투입되어 이월된 미완성품 원가이므로 더하고, 기말재공품 1,000원은 **당기 말에도 완성되지 않은 원가**이므로 뺀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500 + 1,350 − 1,000 = 1,85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1,000, 단위당 변동원가 ₩800인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생산·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60,000의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생산 · 판매량	총고정원가
2,000개 이하	₩ 360,000
2,000개 초과	₩ 440,000

① 1,800개

② 2,100개

③ 2,200개

④ 2,500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원이며, 2,000개 이하에서는 목표이익 60,000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2,000개 초과 구간의 총고정원가 440,000원**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한 생산·판매량은 2,500개이다.

계산 과정

단위당 공헌이익: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차감하면 1,000 − 800 = 200원이다. 제품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이 금액이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데 쓰인다. 생산·판매량을 q개, 해당 구간의 총고정원가를 F원이라 하면 이익은 $200q - F$원이다. 법인세가 없으므로 목표이익 60,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2,000개 이하 구간: 표에서 총고정원가는 360,000원이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2,000개일 때도 이익은 200 × 2,000 − 360,000 = 40,000원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목표이익 60,000원에 도달할 수 없다**.

2,000개 초과 구간: 표의 총고정원가 440,000원을 적용한다. 공헌이익으로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모두 충당해야 하므로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440,000 + 60,000 = 500,000원이다. 이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q = \frac{500,000}{200} = 2,500$개이다.

구간 확인: 계산된 2,500개는 **총고정원가 440,000원이 적용되는 2,000개 초과 구간**에 속한다. 실제 이익도 200 × 2,500 − 440,000 = 60,000원이다. 따라서 필요한 생산·판매량은 2,500개로,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로 나누는 것은 비용의 **기능별 분류법**이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재료비 등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묶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보고기간이 1년보다 길거나 짧아지면, 해당 기간을 사용한 이유와 재무제표 금액이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②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상계하면 각 항목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한다.

③ O: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자산의 회수와 부채의 결제 시기 등을 구별하여 보여 주는 방식이다.

④ X: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처럼 비용을 기업 내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이며,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재료비 등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묶고, 이를 매출·물류·관리 등의 기능에 재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지의 '성격별 분류법'을 '기능별 분류법'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장부마감 전 원장의 매출채권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이다. 장부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				소모품비			
기초	6,000	현금	42,000	현금	10,000	소모품	8,000
매출	50,000						

①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해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록한다.

②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지 않다.

③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다.

④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으로 이익잉여금이 ₩2,000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모품비의 차변잔액 2,000원은 당기의 비용이므로,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면 당기순이익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2,000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용계정의 잔액을 없애는 것은 비용 발생을 취소하는 처리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출채권 계정의 차변 합계는 6,000 + 50,000 = 56,000원이고, 대변 합계는 42,000원이므로 차변잔액은 14,000원이다. 장부를 마감할 때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원**을 적어 양쪽 합계를 일치시키고, 다음 기초에 이 금액을 차변의 '전기이월'로 기록한다.

② O: 매출채권은 기말잔액을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하는 자산계정이다. 수익·비용처럼 잔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마감분개가 필요하지 않다**. 대변에 적는 '차기이월'은 잔액을 넘기기 위한 장부상의 표시이며, 매출채권을 없애는 거래의 분개가 아니다.

③ O: 소모품비는 당기의 성과를 측정하는 비용계정이므로 잔액을 다음 기로 이월하지 않고 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림의 차변 10,000원에서 대변 8,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2,000원이다. 이를 마감하려면 **차변에 손익 2,000원, 대변에 소모품비 2,000원**을 기록하여 소모품비 잔액을 0으로 만든다.

④ X: 소모품비의 차변잔액 2,000원을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하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당기손익은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므로, 이 비용이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2,000원의 증가가 아니라 **2,000원의 감소**이다. 마감으로 소모품비 계정잔액이 0이 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비용의 효과는 손익계정을 거쳐 이익잉여금에 반영된다.

NoteBase

문 10.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계정과목	기초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①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②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③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④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액 400,000원이 **당기순이익**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00,000원 감소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당기포괄이익은 3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처분·대체가 없으므로, 제시된 두 계정의 기초·기말 차이로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구할 수 있다.

1. 당기순손익: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만큼 증가하고 당기순손실만큼 감소한다. 다른 증감 요인이 없으므로 **기말 잔액에서 기초 잔액을 뺀 금액**이 당기순손익이다.
900,000 − 500,000 = 400,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과거부터 누적된 금액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누계액의 당기 변동분**으로 계산한다.
300,000 − 400,000 = −100,000원으로, 당기 기타포괄손실은 100,000원이다. 기말 누계액이 양수여도 당기에 감소했다면 당기 기타포괄손익은 손실일 수 있다.

3. 당기포괄손익: 당기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이다.
400,000 + (−100,000) = 300,000원으로, 당기포괄이익이 발생했다.

당기순이익 400,000원과 당기포괄이익 300,000원의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400,000(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말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20×2년 10월 1일 동 건물을 ₩2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0

② ₩50,000 증가

③ ₩50,000 감소

④ ₩100,000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년 감가상각비 50,000원과 건물 처분이익 50,000원이 **서로 상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0원이다.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1월 1일부터 사용하였으므로 1년분 감가상각비는 $\frac{400,000-0}{4}=100,000$원이다. 손상검사 전 장부금액은 400,000 − 100,000 = 300,000원이다.

2. 20×1년 말 손상차손: 장부금액 300,000원이 회수가능액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100,000원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200,000원으로 낮춘다. 이 손상차손은 **20×1년의 비용**이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3. 20×2년 감가상각: 손상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남은 내용연수는 4 − 1 = 3년, 즉 36개월이고 잔존가치는 0원이다. 10월 1일 처분이므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을 월할상각한다. 감가상각비는 $200,000\times\frac{9}{36}=50,000$원이며,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200,000 − 50,000 = 150,000원이다.

4. 건물 처분손익: 처분대금과 **처분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처분대금 200,000원이 장부금액 150,000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이익은 200,000 − 150,000 = 50,000원이다.

5. 당기순이익 영향: 감가상각비는 이익을 줄이고 처분이익은 이익을 늘린다. 순효과는 −50,000 + 50,000 = 0원이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증감이 없으며 ①의 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③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④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이 처리 기준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뜻하며, 측정기준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를 바꾸는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② O: 감가상각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예상소비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은 자산의 효익이 어떻게 소비될지에 대한 **추정이 달라진 것**이므로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③ O: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에 적용할 정책을 처음 정하는 것**이다. 기존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따라서 선지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로 고쳐야 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과거 기간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변경 당기와 미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 자료이다. 당기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이 ₩150,000일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	기말
재고자산	₩ 15,000	₩ 21,000
선급금	₩ 7,000	₩ 15,000
매입채무	₩ 6,000	₩ 10,000

① ₩134,000

② ₩140,000

③ ₩152,000

④ ₩168,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에서 **매입채무 증가액은 더하고 선급금 증가액은 빼면** 당기매입액 146,000원이 된다. 여기서 재고자산 증가액 6,000원을 빼면 당기 매출원가는 14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매입액 계산: 매입채무는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4,000원 증가했다. 이는 당기에 매입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현금유출액에 더한다. 선급금은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8,000원 증가했다. 이는 현금은 지급했지만 아직 재고자산을 받지 않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현금유출액에서 뺀다. 따라서 **현금 지급 시점과 재고자산 매입 시점의 차이**를 조정한 당기매입액은 150,000 + 4,000 − 8,000 = 146,000원이다.

2. 매출원가 계산: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을 합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기말재고자산**을 빼면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산출된다. 표의 재고자산 행에서 기초는 15,000원, 기말은 21,000원이므로 매출원가 = 15,000 + 146,000 − 21,000 = 140,000원이다.

당기 매출원가 140,000원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주)한국의 20×1년 A주식(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월 1일 처음으로 A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와 함께 ₩50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다.

① ₩45,000 증가
② ₩50,000 증가
③ ₩145,000 증가
④ ₩150,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 거래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처분이익과 결산일 평가이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처분이익 50,000원과 평가이익 100,000원에서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45,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4월 1일 매입: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수수료는 자산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식의 최초 인식금액은 100주 × 5,000원 = 500,000원이다. 지급액 505,000원과의 차액인 5,000원은 수수료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9월 1일 처분: 매도한 50주의 매각대금은 50주 × 6,000원 = 300,000원이고, 해당 주식의 매입 시 인식금액은 50주 × 5,000원 = 250,000원이다. 그 차액 300,000원 − 250,000원 = 50,000원이 처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결산일 평가: 남은 주식은 100주 − 50주 = 50주이다. 결산일 공정가치는 50주 × 7,000원 = 350,000원이며, 매입 시 인식금액 250,000원보다 100,000원 높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유 중 발생한 공정가치 상승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므로, 이 평가이익 100,000원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을 더하고 거래수수료 비용을 차감한다. 50,000원 + 100,000원 − 5,000원 = 145,000원 증가하므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오염 정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실제로 지켜 왔다면, 당기에 유발한 오염에 대해 **정화할 의제의무**가 생긴다. 반면 미래의 정비·교체가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공표한 방침이나 과거 관행으로 외부에 이행 기대를 형성하여 생긴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ㄱ. X: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정밀정비를 해야 하더라도, 그 지출은 항공기를 앞으로 계속 운항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전에 항공기를 매각하는 등 미래 행동으로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미래 행동과 독립된 현재의무가 없다**. 당기에 항공기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 정비비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ㄴ. X: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할 기술적 필요가 있어도, 용광로의 가동을 중단하면 교체 지출을 피할 수 있다. 당기 말까지 3년을 사용한 것은 내벽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에 반영하며, **예상 교체비를 충당부채로 미리 적립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용광로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도만으로 현재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ㄷ. O: 오염을 모두 정화한다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이를 준수해 온 관행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화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의제의무**가 성립한다. 당기에 실제로 오염을 유발했으므로 과거 사건에 따른 현재의 정화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려면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 유출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오염 정화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할 사례는 ㄷ만이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이 취득한 A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한국은 20×1년 초에 A사채를 공정가치 ₩100,000에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A사채의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① 최초 인식시점에 A사채를 ₩101,000으로 측정한다.

② 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③ 만약 (주)한국이 A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④ (주)한국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A사채를 보유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당기손익은 달라진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과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당기손익 인식 기준이 같다**. 보유 중 공정가치 평가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두 분류의 당기손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은 **공정가치에 취득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A사채는 ₩100,000 + ₩1,000 = ₩101,000으로 최초 인식하며, 거래원가를 취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② O: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면 계약상 특정일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범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③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과 손상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보유 중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사이의 평가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더라도 20×1년 당기손익은 동일하다. 기말 공정가치 ₩100,000은 공정가치 측정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금액이며, 이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당기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모형이다. A사채가 이 범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된다는 뜻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원리금 현금흐름 요건도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 측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1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③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정답 2번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③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NoteBase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NoteBase

문 1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②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③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4번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②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1. 신고 · 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③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 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NoteBase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각 연납액이나 분납액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NoteBase

문 19.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총제조간접원가를 예상 총배부기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를 사용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한다.

③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 과대배부액이 발생하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은 경우 과소배부액이 발생한다.

④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계정에서 전액 조정한다면 '(차) 매출원가 × × × (대) 제조간접원가 × × ×'로 분개가 이루어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과대배부와 과소배부를 반대로 설명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원가를 부족하게 배부한 **과소배부**이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으면 원가를 초과하여 배부한 **과대배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총제조간접원가를 예상 총배부기준량으로 나눈 값이다. 직접노무시간이나 기계작업시간 등을 배부기준으로 삼아, **배부기준량 한 단위당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를 미리 정한다.

② O: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실제발생액으로 측정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에 실제 배부기준량을 곱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모두 집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품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③ X: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발생한 원가 중 제품에 배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과소배부액**이 발생한다. 반대로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으면 발생한 원가보다 더 많이 배부했으므로 **과대배부액**이 발생한다. 선지의 과대배부와 과소배부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④ O: 제조간접원가계정에는 실제발생액을 차변에, 예정배부액을 대변에 기록하므로 과소배부액은 차변잔액으로 남는다. 이를 매출원가계정에서 전액 조정할 때는 부족하게 배부한 원가만큼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고 제조간접원가계정의 잔액을 없앤다. 따라서 과소배부액만큼 '(차) 매출원가 / (대) 제조간접원가'로 분개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에 들어갈 값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기초재공품	5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
당기착수량	800단위
당기완성량	900단위
기말재공품	4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900단위

① 20%

② 40%

③ 80%

④ 1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에 수행한 가공작업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한다. 기초재공품 500단위에 당기 중 추가한 가공작업은 완성품 400단위에 해당하므로, 기초에 남아 있던 작업은 80%이고 이미 완성된 부분은 2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을 완성하는 데 당기에 추가한 작업량, 당기착수·완성량, 기말재공품에 당기 중 수행한 작업량을 합한 것이다. 완성품환산량은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값이며,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수행한 작업은 제외**한다. 구하려는 값은 가공원가 완성도이므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직접재료의 완성도와 구분한다.

당기착수·완성량: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 500단위를 먼저 완성한다. 따라서 당기완성량 900단위 중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900 − 500 = 400단위이다. 이 400단위의 가공작업은 전부 당기에 수행되었으므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도 400단위이다.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공손과 감손이 없으므로 기말재공품 수량은 500 + 800 − 900 = 400단위이다.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25%이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당기에 수행한 가공작업은 400 × 25% = 100단위의 완성품에 해당한다.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 작업량: 전체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900단위에서 당기착수·완성분 400단위와 기말재공품분 100단위를 빼면 900 − 400 − 100 = 400단위이다. 이는 **기초재공품을 완성하기 위해 당기에 추가한 작업량**이다. 기초재공품은 500단위이므로 기초 시점의 미완성 비율은 $\frac{400}{500} \times 100 = 80\%$이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 기초에 남아 있던 작업이 80%이므로 이미 수행된 작업은 100% − 80% = 20%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20%이며, ①과 일치한다.

NoteBase